

Korea Wine Challenge 한국 소비자에게 오래 기억될 생산자들

코리아와인챌린지(이하 KWC)는 2005년 첫 개최 이후 금년 제 16회 이벤트를 치르기까지 단 한차례의 스캔들 없이 한국 와인 시장에서 유일한 국제적 와인 평가 주체로 자리매김하기에 이르렀다. KWC가 이러한 파워 브랜드로 일구어진 것은 해외 와인 생산자의 대폭적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글 최훈 본지 발행인 사진 장영수, 각 수입사



이탈리아 'Fantini Group'

KWC에 꾸준히 참여해 온 이탈리아 와인 생산자가 있다. 바로 판티니 그룹이다. 이 그룹의 경영책임자는 지난날 <와인리뷰>에서 현대적 와인을 빛낸 인물열전에 올랐던 발렌티노 쇼티(Valentino Sciotti, 1960~)이다. 1994년, 이탈리아 중부 아브루조 지방의 고읍(古邑) 오르포나에서 오늘날의 판티니(당초 파네세, Farnese)를 설립, 주로 이탈리아 남부 지방의 와인 생산에 주력했다. 오래지 않아 거의 잊혀져있던 남부지방의 와인들이 새로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흔히들 이를 가리켜 남부지방 와인의 재탄생(rebirth)를 가져왔다고 한다. 덕분에 남부지방 와인은 세인의 주목을 받고 가성비 좋은 프리미엄 와인으로 입지를 굳혔다. 여러 해 동안 판티니 그룹은 KWC의 좋은 고객으로 참가했고 이 이벤트를 통해 한국의 와인 마니아들한테 널리 인지되기 시작했다. Fantini 브랜드에 뜨거운 신뢰를 보낸다. 수입사 와이넬

미국 'Constellation group'

오늘날 미국은 질 좋은 와인을 내는 와인 산국으로 확고한 입지를 다져 놓았다. 지금은 전설적 현대 와인 생산자의 열전에 올랐던 로버트 몬다비(Robert Mondavi, 1913~2008) 와인을 비롯해 신성으로 떠오른 'Prisoner' 와인, 그리고 이탈리아의 Ruffino, 뉴질랜드의 Kim Crwaford 와인 등을 포용하고 있는 그룹이 바로 Constellation이다. 이전까지 우리 시장에서 이 그룹은 그리 익히 알려진 브랜드가 아니었다.

그러나 몇 해 전부터 KWC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와인리뷰>는 이 그룹의 실재를 알리는데 인색치 않았다. 컨스텔레이션 그룹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다량의 와인을 참가시켰을 때 우리들은 이 그룹에 뜨거운 고마움을 보냈던 일이 있다. 수입사 신동와인, 나라셀라

프랑스 'Delas'

원래 이 생산자의 표기는 'Maison Delas Frères'이다. 필자는 2018년 9월, 해마다 잊지 않고 KWC에 질 좋은 와인을 보내는 Delas에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룬에 자리한 이 집을 방문한 일이 있다. 푸른 론 강이 유유히 흐르는 강안, 약간 높은 언덕에 그 유명한 크로즈 에르미타주(Croz Hermitage)의 포도밭이, 또한 지호지간에 에르미타주의 와인 산지가 놓여있다. 사실 북부 론 지방의 와인은 프랑스 안에서도 명주로 대접받는다. 와인 석학 로버트 파커는 그의 명저 'Wines of the Rhone Valley'에서 보르도와 부르고뉴 와인에 필적할 만한 와인이 바로 Rhone 와인이라 평하고 있다. 실제 론 와인은 보르도나 부르고뉴 와인에 비해 전혀 손색이 없다. 그리고 가성비 측면에서도 론 지방의 와인이 월등하게 우세하다. 특히 이 지방 와인을 명주로 여기는 이유는 질감이 깊고 기분 좋은 시라의 탄닌을 양껏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KWC의 단골손님으로 우리들은 'Delas'의 레이블을 오래 기억할 것이다. 수입사 레뱅드매일

프랑스 'Gerard Bertrand'

남프랑스에 해성과 같이 뜬 와이너리를 꼽을라치면 바로 제라르 베르트랑일 것이다. 지난 2018년 9월, 론을 거쳐 나르본에 자리한 이 와이너리에 들러 하루를 묵은 일이 있다. 그룹의 총수는 나르본 출신의 'Gerard Bertrand'. 한때 국가대표 럭비 선수로 뛰었으나 1992년 오늘의 회사를 창업하고 남프랑스의 뛰어난 테루아를 심분 활용해 이 지방의 새 명주를 탄생시켜 와인 명가로 자리 잡았다. 현재 남프랑스(랑그독·루시옹 지방) 일대에 무려 14개의 샤토와 이스테이트를 보유하면서 와인 계에 새로운 거목으로 성장했다. 특히 경영주 제라르 베르트랑은 와인 양조에 그의 철학을 담아 우아한 와인의 생산과 유통에 헌신하고 있다. 이 그룹 역시 해마다 KWC에 상당량의 와인을 보내고 있다. 금년에는 베르트랑의 기본 철학을 레이블에 담은 'art of living'을 함께 참가시켜 주었다. <와인리뷰>의 현대적 와인을 빛은 인물열전에 이 집 주인이 함께 자리했다. 어느 면에서는 남프랑스의 새 전설로 부각되고 있다. 수입사 하이트진로



프랑스 서남부지방 'Plaimont'

2018년 와인 탐사의 일환으로 바스크 쪽이 사는 피레네 산속의 프랑스 일루레기(Irouleguy)와인 산지를 찾는 길에 들른 와이너리이다. 프랑스 서남부 지방은 일찍이 피레네 산맥 일대의 테루아를 베이스로 질 좋은 와인이 나는 곳이다. 쥐라송을 위시해 뷔제, 마디랑, 베아른, 가이악, 그리고 생 몽 등의 AOC 와인이 바로 이들 와인이다. 서남부 지방의 와인은 피레네 산맥, 가론 강, 대서양 등의 넉넉하고도 순수한 자연에서 얻어지고 있어 와인 자체도 매우 신선하고도 유순하다. 이 생산자는 조합 형태의 까브(생산자)로서 이 일대의 포도 경작자 800명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그들의 질 좋은 포도를 공급해 와인을 빚고 있다. 어느 면에서는 5,300ha의 포도밭을 배경한 서남부의 공룡이라 하겠다. 2018년부터 KWC에 참가하기 시작해 연속적으로 훌륭한 와인을 보내고 있어 잊지 못할 와이너리에 리스트업했다. 수입사 비노파라다이스

No.	와인명	생산자	수입사	수상부문
1	Fantini Edizione Vino Bianco	Farnese Vini Srl	와이넬	Gold
2	Robert Mondavi Private Selection Bourbon Barrel Aged Cabernet Sauvignon	Robert Mondavi Private Selection	신동와인	Gold
3	Delas Cotes du Rhone Saint-Esprit	Delas	레뱅드매일	Gold
4	Gerard Bertrand Cigalus White	Gerard Bertrand	하이트진로	Gold
5	Plaimont Echo Indigo White	Plaimont	비노파라다이스	Gold



FANTINI GROUP FARNESE

Tenute Rossetti
Tino Rosso Toscana
테누테 로제띠, 띠노 로쏘 토스카나